

직설법 부정 과거와 불완료 과거형¹⁾에 관한 연구

김정옥
(전북대학교)

Kim, Jeong-ook. 2004. A Study of Two Forms of Spanish Past Tense.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2(4), 1-15. The aim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what is the difference in the usage of two verbal forms of past tense. I will study the definition of 'pretérito indefinido' and 'pretérito imperfecto' from the aspectual and temporal viewpoint. I will analyse some theories of representative Spanish grammar, now that there are some mistakes in the theory of two verbal forms in past tense. It is sometimes difficult to determine these verbal forms, because the past tense is represented by two verbal forms in Spanish. From the aspectual viewpoint, I will find out the usage of these forms and explain the past tense and its aspect from a subjective viewpoint. Finally, this paper elucidates the distinctive feature at the usage of 'preterito indefinido' and 'preterito imperfecto' of past tense.

주제어(Key Words): verb, aspect, past tense

1. 서론

시간 표현에 관한 언어적 연구는 크게 시제, 상, 동작 및 시간부사의 어휘영역에서 이루어져왔다. 스페인어 문법에서 시제에 관한 연구는 가장 오래되었고 상과 동작태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근래에 이르러서야 활성화되고 있다. 시간부사의 경우는 시간 표현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양이 그다지 많이 축적되지 못했다.

본 논문에서는 과거 사실을 표현하는 두 가지 형태(*pretérito indefinido*, *pretérito imperfecto*)²⁾의 시제 의미를 연구하고자 한다. 스페인어에서 과거 사실을 나타내는

1) 스페인어 *pretérito indefinido*와 *pretérito imperfecto*를 표현하는 한국어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김현창(1986), 박철(1993), 장선영(1998)이 사용하는 '부정 과거'와 '불완료과거'를 사용하고자 한다. 우덕룡(1996)은 '과거'와 '불완료과거'를 유연창(2002)은 '(부정)과거'와 '불완료과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 스페인어 동사형의 용어는 학자마다 시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한립원의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참고로 각 시대의 주요 문법학자들은 각자 다른 동사형의 용어를 사

현재완료형은 로망스어의 발달 과정에서 새로 형성된 형태이나 부정과거와 불완료과거 *amabam*과 *amavi*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형태이다. 로망스어 발달 과정 중 의미 변천 과정에서 상당한 변화를 겪었으므로 변천 과정을 연구하는 것도 의미과학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동사형에 대한 한림원(1931)과 Bello(1988) Hanssen(1945)이론을 중심으로 한 분석, 비판을 토대로 용법을 체계화 하고자 한다. 여기서 전통문법의 이론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라틴어에 어원을 두고 있는 스페인어 어휘의 변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 시제의 정의와 연구 목적

시제란 동사의 형식에서 객관적 시간 관계를 표현하는 문법 범주를 말한다. 다시 말해 시제는 언어외적 시간이 화자의 의식 속에 반영되었다가 그 의식을 거쳐서 동사 형식으로 표현된 것이다. 전통적으로 시제는 발화 시간과 사건이 전개되는 시간과의 관계로 정의되었다. 즉 현재시제란 발화시간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시간을 의미하고 과거시제란 발화시간 이전에 사건이 전개되었던 시간을 그리고 미래시제란 발화시간 이후에 사건이 전개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제 의미는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 시간 각각에 해당하는 세 개의 시제 범주가 있는 언어에서만 타당하다.

스페인어는 과거, 현재, 미래로 구성된 언어로서 자연의 시제 체계와 일치하는 삼분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언어학에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객관적 시간 관계는 현재, 과거, 미래의 삼분적 시제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Jespersen(1924)으로부터 유래되었다. 스페인어의 거의 모든 문법서 또한 Jespersen식으로 현재, 과거, 미래라는 시제 범주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삼분적 시제 개념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언어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왜냐하면 실

용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 연구된 두 가지 동사형의 용어를 학자 별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 각 시대별 주요 문법학자들의 과거시제 용어

	Nebrija (1492)	A.delcorro (1590)	Correas (1625)	R.A.E (1771)	Salva (1830)	Bello (1847)	RAE (1931)	Lenz (1925)
canté	pasado acabado	pasado perfeto	perfecto	pretérito perfecto remoto	pretérito absoluto	pretérito	pretérito indefinido	pretérito perfecto
cantaba	pasado noacabado	pasado imperfeto	imperfecto	pretérito imperfecto	pretérito coexistente	co- pretérito	pretérito imperfecto	pretérito imperfecto

제, 언어에 있어서 시간의 문제는 반드시 이와 같은 자연 시간의 흐름의 방향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인류에 공통된 논리적 시간의 흐름이란 일정한 방향을 향해 진행되는데 반하여 이를 언어적으로 표출하는 문법적 시제 체계는 비교적 부족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논리적 시간의 흐름과 문법적 시제형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언어도 존재해 왔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학사를 통하여 거의 모든 시제 연구는 삼분적 시제 체계를 토대로 진행되었다. 또 이러한 현재, 과거, 미래를 결정짓는 기준을 발화 시점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거의 모든 언어 학자들의 공통된 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첫째, 앞에서 밝혔듯이 스페인어는 과거, 현재, 미래의 삼분법 시제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동사형 중 부정 과거와 불완료 과거의 구분은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늘 명쾌하지 못하고 난해하다. 특히 우리의 모국어인 한국어의 과거 표시는 “았/었” 밖에 달리 표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모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시제와 상의 개념은 초보자들이 배우는 한국어판 스페인어 문법서의 설명에서도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경계가 모호한 부정과거와 불완료 과거의 용법에 관한 정확한 정의를 위하여, 스페인 한립원 이론을 토대로 A. Bello와 F. Hanssen의 이론을 분석, 비판하면서 두 형태 사이의 용법을 주로 상의 측면에서 모색해 보고자 한다.

둘째, 이러한 일차적인 의미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과거 시제의 이차적이고도 비유적인 의미들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과거 시제를 기존의 시간적인 개념에서만 본다면 포괄적인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방법 또한 모색해 보고자 한다.

3. 스페인어 동사형의 유래

라틴어의 동사형은 로망스어에 의해서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어 동사 활용형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라틴어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틴어 동사형 시제는 단순형으로 이루어진데 반하여 스페인어 동사형은 단순형과 복합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형사, 과거분사, 동명사로 이루어진 우설법 동사도 상을 나타내는 표현수단이 된다. 동사형 생성 변천 과정은 스페인어에서 사라진 라틴어 동사형, 변천과정에서 의미가 바뀌진 라틴어 동사형, 그리고 변천과정

3) 예를 들어 영어의 경우, 현재와 과거를 나타내는 동사 활용 형태소는 존재하나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형태소는 없기 때문에 조동사의 도움을 통하여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에서 새로 형성된 동사형의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라틴어의 시제형은 단순형 시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데 반하여, 스페인어는 단순형과 복합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스페인어의 시제 구분이 라틴어보다 더 많다는 것이다.

라틴어 직설법미래 *amabo*가 스페인어 우설법 *amar-he*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라틴어 직설법 미래완료(*el futuro perfecto de indicativo*) *amavero*, 접속법 불완료 과거(*el imperfecto de subjuntivo*) *amaren*, 접속법 현재완료(*el perfecto de subjuntivo*) *amaverim*의 동사형들은 상호간에 음성적인 혼동으로 인하여 언어 발달 단계에서는 그 흔적이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amare*도 중세와 르네상스기를 거쳐 오늘날에는 거의 사라져 가는 상황에 있다.

라틴어 직설법 과거완료(*el pluscuamperfecto de indicativo*) *amaveram*은 스페인어 접속법 불완료 과거(*el imperfecto de subjuntivo*) *amara*로, 접속법 과거완료(*el pluscuamperfecto de subjuntivo*) *amavissem*은 스페인어 접속법 불완료 과거 *amase*로 변화를 겪는다. 오늘날 스페인어에서 사라진 직설법미래 *amabo*는 *amar+he*(infinitivo+ haber 현재형)로 대체되었다. 접속법현재가 스페인어에서는 원망법이나 명령법의 의미로도 사용되고⁴⁾ 있으며 라틴어 완료 의미는 스페인어 *amé*보다 *he amado*형태에서 더 보존되고 있다. 그리고 불완료 과거는 주로 문학작품에서 많이 사용된다.

스페인어에서 보존된 동사형들은 시제와 서법의 의미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과거 사실을 나타내는 현재완료형은 로망스어의 발달 과정에서 새로 형성된 형태이나 부정과거와 불완료 과거 *amabam*과 *amavi*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형태이기 때문에 로망스어 발달 과정 중 의미 변천 과정에서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동사형에 대한 한림원과 Bello(1989), Hanssen(1945), Lenz(1935)이론을 중심으로 한 분석, 비판을 토대로 그 용법을 체계화 하고자 한다.

4. 기존 이론의 문제점 분석, 비판

4.1 부정과거(*pretérito indefinido*)

4.1.1 한림원(1931)

부정과거는 과거의 어느 시기에 완전히 끝난 행위나 사실로서, 현재와는 관련지

4) 15, 16세기 스페인어 문법 학자들은 서법 분류에서 직설법과 접속법 이외에 원망법과 명령법을 세분하고 있으나 오늘날 학자들은 주로 직설법과 접속법을 서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를 떠나서 접속법 현재형이 구문에 따라서 명령과 원망, 회구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어 생각할 수 없는 완전한 점의 행위이다. 이를 세분화하여 한림원은 절대적인 시제 개념과 상대적인 시제 개념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정의한다(R.A.E, 1931: 270).

절대적인 측면에서 부정과거는 부정적인(*indefinido*)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행위의 종결 여부에 관계없이 발화 행위 직전에 행위가 끝났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언급된 절대적인 과거 시제란 담화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한 과거의 행위로서 주로 단문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부정과거의 부정적인(*indefinido*) 성격을 강조한 전형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행위의 종결 여부에 관한 한림원 정의는 모순이 있다. 아래 예문에서 *Cain*이 *Abel*을 죽인 행위는 이미 완료된 행위이다. 이처럼 행위가 사실상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림원의 “*sin indicar si la acción está o no terminada*”라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

- (1) a. *Cain mató a su hermano Abel.*
- b. *Jesucristo nació en tiempo de Augusto.*
- c. *El mes pasado estuve en El Escorial.*

한편 상대적인 측면의 부정과거 시작과 종결 의미는 과거 사실의 일차적인 분류 기준이었던 발화 시점을 벗어나 동사 어근 자체 의미나 상황보어, 그리고 같은 시제일 경우 관계 형용사절 등의 구조적인 상관 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 예문에서처럼 동일한 시제일 경우 어근의 고유 의미에 따라 시간의 전후 관계가 결정되나 *en seguida*처럼 상황보어도 시간적인 전후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2) a. *Leí tu carta y en seguida hice la recomendación,[...]*
- b. *Vió a su hijo y se echó sobre él [...].*

마지막으로 한림원 이론에서는 동사의 상과 연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 명확한 개념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는 인구어가 그렇듯이, 스페인어에서도 시제 안에 비단 시간관계 뿐만 아니라 시간 관계에 연상되는 상과 법의 개념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형태소가 나타내는 여러 가지 뜻을 포괄적으로 모두 담을 수 있는 정확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림원의 설명은 시제와 상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한림원(1931)은 부정과거가 과거시점에서의 지속되지 않는 완료된 행위를 표현한다는 이론에서 발전하여 과거 행위의 시작도 표현할 수 있음을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시점에서의 사건의 지속 여부가 완료와 불완료의 분기점이

라는 한림원의 이론에 큰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4.1.2 Andrés Bello(1988)

Andrés Bello는 시제간의 경계에 대하여 매우 간결한 설명을 함과 동시에 시제와 상간의 모호한 경계 부분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그는 부정과거란 ‘발화 행위 이전에 일어난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A.Bello의 시제 이론 중 주목할 만한 점은 동사의 성격을 ‘순간적인 동사’와 ‘영속적인 동사’로 구분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동사의 고유한 의미에 따라 구분되는 변별 자질로서 시제의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구분이라 할 수 있다. 순간동사의 부정과거는 일어났던 사실 전체, 다시 말해 서술된 행위가 발화시점 이전에 완결됨을 가리키는 반면에 지속동사의 부정과거는 일어났던 사실 전체 즉 서술된 행위가 완결된 시점의 이전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A.Bello, 1988:433).

Bello는 부정 과거와 불완료 과거의 차이를 시제의 차이로 정의한 대표적인 학자이다. 부정 과거는 발화시점을 기준으로 선행성을 불완료 과거는 과거 시점에서의 다른 시제와 동시성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Bello이론은 ‘pretérito’, ‘co-pretérito’ 개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어서 부정 과거가 은유적 용법으로 사용될 때는 때때로 현재완료의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이는 라틴어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라틴어 *amavi*가 오늘날 스페인어의 부정과거와 현재완료의 두 가지 시제 의미를 내포하였기 때문이다.

4.1.3 F.Hanssen(1945)

Hanssen의 시제 개념 발전은 주로 문체-어휘론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에 의하면 부정 과거란 과거 사실이 지속되지 않고 종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다른 학자들과 같은 정의를 하고 있다. 부정 과거는 원래 라틴어의 완료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부정 과거와 현재완료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으나, 근대에 이르러서야 현재완료의 시제 개념이 도입되어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아스투리아 지방어와 포르투갈어의 부정과거에는 현재완료의 개념이 보존되고 있다 (Hanssen, 1945:226).

일반 대중들이 사용되는 언어 현상이 정착되면서 이를 이론화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나, 스페인어의 현재완료 형태의 경우는 먼저 규범문법에 의하여 부정 과거와 현재완료의 의미가 구별된 후 이를 대중이 받아들여 일반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재완료의 용법에 대하여 한림원은 과거와 현재시제의 두 가지 의미

를 동시에 구비하고 있다고 정의한다. 현재 완료형은 아무리 과거에 일어난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현재의 시점에 연결되는 경우에 사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관련이 있는 모든 과거의 동작이나 상태는 현재 완료형으로 나타내게 된다. 그러나 스페인어에서 최근의 행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acabar, venir + de + infinitivo 구문도 사용되고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4.1.4 R. Lenz(1935)

Lenz는 부정 과거 이론은 Bello의 영향을 받았으며 Bello가 제기한 부정 과거와 현재 완료와의 의미 경계에 관하여 검증해 보이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정 과거는 과거의 사실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인 반면에, 현재 완료는 다분히 주관적인 수용으로 볼 수 있다(Lenz, 1935: 414).

부정 과거와 불완료 과거의 구분 요소라 할 수 있는 행위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왜냐하면, 과거의 사실을 기술한다는 의미에서 부정 과거나 현재 완료의 시제는 동일한 용법이며, 이들 두 형태의 구분은 순전히 상의 측면에서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될 성격이지 사실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4.1.5 김현창(1986), 우덕룡(1996), 장선영(1992)

국내 학자들은 한림원을 중심으로 스페인 문법 학자들이 정의한 행위의 ‘시작과 종료’ 그리고 ‘지속’의 개념에서 기본적으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직설법 부정과거는 어느 일정한 과거 시점에 이루어진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하는 반면에, 불완료 과거란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의 계속적인 동작, 또는 과거의 일시 동작들의 반복이나 습관적인 행동 등을 표현한다”(김현창(1986: 125)는 규범적인 정의는 학습자에게 혼돈을 야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일정 기간 내에 종료된 행위”와 “일정 기간 이상 진행된 행위의 지속 여부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간의 지속여부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부정 과거와 불완료 과거는 시제의 차이가 아니라 상의 차이로 파악해야 하며 전통 문법 학자들이 정의한 것처럼 시간의 지속 여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즉 완료와 미완료의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아래 문장은 후안이 작년에 마드리드에 거주했던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문장이지만 그러나 b는 일년 동안을 하나의 단일한 시간 개념으로서 끊이지 않는 완료된 시간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에 a는 완료되지 않는 상황에 화자의 관점을 두

고 특정 기간에 초점을 맞춘 거주가 아닌, 거주기간의 상태에 관심을 두고 완료되지 않는 행위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처럼 행위의 지속성 여부는 문맥에 따라서 화자의 주관에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의 규범적 정의는 수정되어야 한다.

- (3) a. Juan estaba en Madrid en el ano pasado.
- b. Juan estuvo en Madrid en el ano pasado.

4.2 불완료 과거

4.2.1 한림원(1931)

불완료 과거형은 과거의 사실로서 계속되던 행위나 상태를 나타내며, 또한 완전히 완료되지 않은 사실을 나타내는 상이다. 동사 형태만으로는 그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없고, 다른 시제와 더불어 구성된 문장의 전후 맥락을 통해서만 그 뉘앙스를 파악할 수 있다.

한림원은 아래 예문에서처럼 불완료 과거란 과거의 일정한 기간 동안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동작으로서 주절의 동작과 종속절의 동작이 서로 일치하는 상대적인 시간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R.A.E, 1931: 470).

- (4) a. Llegó mi hermano cuando yo le escribía; esto es, cuando estaba yo escribiéndole.

그리고 불완료 과거(*pretérito imperfecto*)는 과거 완료(*pretérito plusquam perfecto*), 미래 완료(*futuro perfecto*)와 함께 접속법과 가능법의 모든 형태들을 상대적인 시간 개념으로 구분한 반면에, 직설법 현재(*presente*), 현재 완료(*pretérito perfecto*), 부정 과거(*pretérito indefinido*), 미래(*futuro imperfecto*)는 절대적인 시간 개념으로 간주하고 있다. 절대적인 시간 개념은 상대적인 시간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상대적인 시간 개념은 절대적인 개념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고 한림원은 정의하고 있다(R.A.E, 1931: 269). R. Lenz, F. Hanssen은 불완료 과거에 관한 한림원의 이론과 일치된 정의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한림원의 정의에서 두 가지 모순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첫째, 상기 예문처럼 불완료 과거형이라 하여 반드시 끝나지 않은 행위를 표현한 상황이라 볼 수 없다. 아래 예문처럼 침묵을 지킨 시간은 말했던 시간과 지속시간

이 일치되기 때문에 불완료 과거일지라도 행위의 종결 여부가 명백해지기 때문이다.

(5) Todos callaban cuando tu hablabas,

둘째, 불완료 과거가 상대적인 시제 개념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개념으로도 사용된다.

그러나 불완료 과거는 상대적인 시간 개념이라는 전제하에 다른 불완료 시제나 부정과거와 함께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절대적인 개념의 문장도 사용되고 있다.

(6) a. Eran las seis en punto.

b. El cielo estaba gris.

셋째, 주절과 종속절에 공통적으로 불완료 시제일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동시성이 이루어진다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

(7) Cuando llegué a casa, llovía.

넷째, 한립원의 규범처럼, 항상 다른 불완료 시제나 부정과거와 함께 사용되지 않는다. 불완료 과거의 지속여부는 상의 측면에서 정의되는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불완료 과거나 현재 시제와도 함께 사용된다. 이는 실제 사용되는 언어 현상을 간과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예문을 들 수 있다.

(8) Cuando tu viajabas por Espana, estábamos nosotros en Suiza.

이와 관련하여 형태는 불완료 과거형이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지속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역사적인 현재의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9) Su nombre era Don Rodrigo Diaz de Vivar, [...] Este gran hombre tenia un caracter energico [...]era serio,sufrido, noble, leal y caballeresco.

4.2.2 Andrés Bello(1989)

Andrés Bello 역시 한림원의 영향을 받아 동일한 설명을 하면서도 불완료 과거가 의미하는 지속성, 진리성을 다음처럼 정의하고 있다. 아래 예문처럼 불완료 과거 시제가 부정 과거와 함께 사용될 경우, 불완료 과거는 오래 지속된 과거 사실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진리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반대로 *giraba* 대신 *gira*로 대체되었을 경우 이는 영원한 진리로 보기는 어렵다(A. Bello, 1989: 434).

(10) Copernico probó que la tierra giraba alrededor del sol?

4.2.3 F. Hanssen(1945)

로망스어 발달과정에서 볼 때, 스페인어의 불완료 과거는 라틴어의 불완료 과거 의미를 지니고 있다(F. Hanssen, 1945: 325). 스페인어 불완료 과거가 라틴어 불완료 의미를 기본적으로는 계승하였지만 스페인어의 근대적인 발달 과정에서 불완료 과거는 그 의미가 발전하여 왔기 때문에 문체론적으로는 라틴어 불완료인 과거의 의미에 비하여 스페인어 불완료 과거에 의미가 첨가되었기 때문이다.

불완료 과거는 행위의 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로서, 상의측면에서, 반복적이고 미완료적 의미를 아래와 같이 나타내고 있다(Hanssen, 1945: 226). 이러한 Hanssen의 정의는 한림원의 규범적 정의⁵⁾에 영향을 받았다.

- (11) a. Comía a las doce.
- b. Moría = casi murió.

불완료 과거의 절대적 시간 개념은 논문에서 분석된 학자의 공통된 정의이다. 시제의 성격보다는 논리적인 성격을 나타낸다는 점과 특히 수사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래 예문처럼 겸손의 의미까지 나타내고 있다(Hanssen, 1945: 227).

(12) Le vendía. = quisiera vender.

이러한 불완료 과거의 특수한 용법은 근대로 들어서면서 불어의 영향으로 문학 용어로서 증대되어 왔고, 지금은 범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Hanssen, 1945:

5) 상대적인 시간 개념으로 주로 부정과거와 사용되며 때때로 다른 불완료 과거와 함께 사용되며 통사적으로는 종속절구문에서 주로 사용된다.

226).

4.2.4 R. Lenz(1935)

Lenz(1935)는 불완료 과거를 시제의 측면보다는 상의 측면 비중을 두어서 설명하고 있다. 부정과거의 기동적이고 점적인 개념에 비하여, 불완료 과거를 끝나지도 시작되지도 않은 지속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한림원의 설명에 따르면 *cantaba*와 *estaba cantando*의 의미구분이 어려웠으나 Lenz이론은 두 가지 동사형의 의미적 구분을 분명히 하고 있다(Lenz, 1935: 473). 즉 *estaba cantando*가 단지 하나의 동작을 나타낸다면, *cantaba*는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동작을 나타낸다.

5. 분석된 이론의 문제점

지금까지 우리는 대표적인 스페인어 문법학자들의 이론을 고찰하면서 과거의 사실을 나타내는 두 유형에 관한 용법을 모색해왔다. 문법학자들의 이론들은 화자가 어느 사건을 발화할 때 사건의 시제는 화자의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정의하려는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

첫째, 기존 연구들에서는 발화 시점을 현재와 과거의 유일한 분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시제에 있어서 현재와 과거는 자연 시간과 다르며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된다. 예로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 영역이 넓게는 몇 십 년 전도 포함될 수 있으나 좁게는 단 일초도 포함될 수 있다. 부정과거든 불완료 과거이든 과거 시제란 시간상의 과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인식상의 거리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시제의 문제는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야 한다.

둘째, 과거 시제는 현재와 별개인 과거 영역에서 존재했던 어떤 상황이 있었음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현실이 아닌 상상의 세계의 사건을 나타내는 데에도 쓰인다. 현실과 상상의 구분은 시간상의 구분이기보다는 인식상의 구분이다. 그래서 과거 시제는 가정법 문장에서 다음과 같이 쓰인다.

아래 문장의 동사 *twiese*는 과거 시제 동사로서 현재와 동떨어진 과거사실을 나타낼 수도 있고, 현실세계와 떨어진 상상의 세계를 표현할 수도 있다. 아래문장에서는 부사절을 유도하는 *si*가 조건을 나타내기 때문에 *twiese*는 상상의 세계와 묘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래 예문의 *twiese*와 *fuese*는 비현실 영역에 있기 때문에 현실과 떨어져 있는 상상의 개념이다.

- (13) a. Si yo tuviese dinero, se lo prestaría.
 b. Si yo fuese rico, podría comprar esa cosa.

셋째, 각각의 동사형들은 시제와 상의 의미 이외에도 비유적인 의미(검슨)와 은유적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이차적인 용법들은 이미 시제와 상의 성격을 벗어난 용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소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과거 시제의 성격을 시간상의 거리 개념이 아니라 인식상의 거리 개념으로 바꾸어 조망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설명도 용이해지리라 여겨진다.

넷째, 문장의 어휘내용은 시간 축 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절의 어휘내용은 다른 절의 어휘 내용에 대해 어떠한 직접적인 시간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발화 시간과도 직접적인 시간관계를 갖는다. 어휘내용은 우리가 시간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구조의 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개념은 '상태의 변화'이다. 부정과거의 완료상은 어떤 상태로의 변화, 즉 어떤 특정 상황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이러한 상황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로의 전이 과정을 포함한다. 이 상태 동사가 부정과거 동사형의 형태소 활용을 할 경우, 사건동사와 유사해진다.

6. 부정 과거와 불완료 과거의 용법

지금까지 스페인어 문법서들은 부정 과거와 불완료 과거의 구분을 상의 차이에 서 찾으려하지 않고 시제의 차이에서 객관적인 규범을 규정하려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과거 사실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두 가지 동사형의 구분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상의 측면에서 용법을 구분하고자 한다.

첫째, 순간적인 동사는 부정과거형을 취하는데 문맥의 상호관계에 의하여서도 동사형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영속적인 동사는 불완료 과거형과 때로는 현재완료형 활용이지만 문맥에 따라 부정과거형을 취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상의 의미가 부정과거에 의하여 표현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 (14) a. Ayer visité a mi padre.
 b. Cuando tu llegaste, yo estudiaba.
 c. Cuando vivía en Madrid, iba al museo.

둘째, 불완료 과거가 반복적이고 미완료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독립적인 용법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주절에 위치한 부정과거가 종속절에 다른 부정과거나 불완료

과거 이외에 현재형까지도 함께 사용되어질 수 있다.

- (15) a. El niño tenía miedo.
 b. Cuando entre en el cuarto, se apagó la luz.
 c. Cuando llegaste, tu estudiaba.

그리고 상태 동사가 부정과거활용을 하면 이는 상태 동사에서 행위 동사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래에서 상태동사 *saber*는 불완료 과거형 동사이기 때문에 안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반면에, 부정과거형 *supiste*는 알아낸다는 의미로 상태 동사가 이미 행위 동사화가 되었다.

- (16) a. Sabía que español se usa no sólo en España sino también en América Latina.
 b. Supiste que me casaría con Teresa, la chica más guapa de Corea.

기존의 이론에서처럼 시제의 개념을 시간적이고도 객관적인 개념에 기초를 두고 과거 시제를 조망한다면 가정법 구문이나 은유적인 표현들에 대한 일관된 설명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발화시점인 현재를 기준으로 어디까지 앞선 시간을 과거로 할 것이냐는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결정될 성질이 아니다. 과거 시제는 현재와 떨어진 과거 영역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음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어느 상황의 현실이 아닌 상상의 세계의 사건을 나타내는 데에도 쓰인다. 현실과 상상의 구분은 시간상의 구분이기보다는 인식상의 구분이다.

- (17) Si yo tuviera dinero ahora, lo compraría.

수사학적인 측면에서 현재를 대신하여 겸손의 의미와 기술적이고 수사적인 의미의 용법 그리고 은유적인 용법(한림원) 등을 과거 시제가 나타내는 용법으로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 (18) a. Ojalá obtenga ese trabajo.
 b. Quisiera explicarle los usos de 'pretérito indefinido' y 'pretérito imperfecto'.

A. Bello(1988)도 정의하였듯이, 각각의 시제들은 기본적인 의미와 이차적이고도 비유적인 의미로 양분이 가능한데, 이런 이차적인 용법들은 이미 시제의 성격을 벗

어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소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과거 시제의 성격을 시간상의 거리 개념이 아니라 인식상의 거리 개념으로 바꾸어 조망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7. 결론

스페인어 학습자들이 겪는 ‘부정 과거’와 ‘불완료 과거’의 어려움은 모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시제 체계뿐만 아니라 기존 스페인어 문법서의 이론이 두 가지 동사형의 성격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스페인어 문법서의 모순은 학국어판 문법서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얻어진 상에 관한 요점은 상이 시간 구간 사이의 시간적인 관계에 의해 주관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에 대해 특이한 점은 이러한 관계들의 성질이 아니라 이들이 얻게 되는 시간 구간들, 즉 상황시간과 주제시간인 시간구간들이다.

결국 이러한 주관성의 개입으로 시제의 문제는 항상 상의 문제와 맞물려 작용하게 되고, 이런 연유로 상과 시제의 문제는 그 동안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항상 명쾌하지 못한 과제로 남아있음을 우리는 깨닫는다. 이 두 가지 동사형의 용법이 규범화될 수 있다고 혼동해서는 안 된다. 화자의 의도나 주관에 따라서 의미효과를 표현하기 위하여 부정과거/불완료 과거의 쓰임은 항상 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 이는 부정과거와 불완료 과거의 분기점이 되는 시간의 지속성 여부가 화자의 주관에 전적으로 달려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정욱. (1996). 스페인어 서법에 관한 통시적 연구”, *스페인어문연구*, 6, 591-611.
 김정욱. (2003). “서법이론의 발달과정(19, 20세기)”, *스페인어문문연구*, 27, 31-58.
 김정욱. (2003). “19,20세기 전통문법의 접속법이론 발전과정: 목적어절과 독립절을 중심으로”, *스페인어연구*, 119-134.
 김현창. (1986). *기초 스페인어*. 서울: 신아사
 박 철. (1993). *독학 스페인어 첫걸음2*. 서울: 진명출판사
 우덕룡. (1996). *초급 서반아어*. 서울: 송산 출판사.
 유연창. (2002). *TOTAL스페인어 문법*. 서울: 삼영서관
 장선영. (1975). *서반아어*, 서울: 신아사, 1992 (17판)
 Alarcos Llorach, E. (1977). *Gramática Estructural (Según la Escuela de*

- Copenhagen y con especial atención a la Lengua Española*), Madrid: Gredos (2ª ed.).
- Alarcos Llorach, E. (1980). *Estudio de Gramática Funcional de Español*, Madrid: Gredos (3ª ed.).
- Bello, A. (1988).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Destinada al Uso de los Americanos*, Con la nota de Rufino José Cuervo (est. y ed. [crít.] de R. Trujillo), 2 Vols., Madrid: Arco/Libro, (ed. orig., Santiago de Chile,
- Fillmore, C. (1967). "The Case for Case" in Bach, E. and R. Harms (Eds), *Universal in Linguistic Theory*, 1-88.
- Gila Gaya, S. (1983). *Curso Superior de Sintaxis Española*, Barcelona: Vox-Bibliograf (15ª ed.).
- Jespersen, O. (1968). *La filosofía de la gramática*, trad. Carlos Manzano, Anagrama, Barcelona.
- Lenz, Rodolfo. (1920). *La oracion y sus partes: Estudio de gramática general y castellana*, Madrid, 1925((2a ed)
- Palmer, F. R. (1977). "Modals and Actuality" in *Journal of Linguistics*, 1-23.
- Real Academia Española. (1982). *Esbozo de una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Calpe (8ª ed.).

김정옥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북대 인문대

Tel: 061)725-3375, 011-685-0300

E-mail: buenos7@hanmail.net

Received: 30 Sept, 2004

Revised: 23 Nov, 2004

Accepted: 5 Dec, 2004